

제7차 강원녹색당(준) 정기총회 회의록

○ 일시: 2019년 1월 26일(토) 13시 30분

○ 장소: 미네르바의올빼미

○ 참석인원 : 125명

- 성원: 156명

- 참석: 15명

- 위임: 110명

○ 총회 회의 결과

1. 성원보고(13:45)

- 김은지 사무책임자가 총 당원, 참석 당원, 위임 당원, 참관을 알리고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보고하다.

2. 의장 선출 및 서기 선출

- 김은지 사무책임자가 의장에 강원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지현탁 당원을, 서기에 진솔아 당원을 추천,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 의장과 서기를 선출하다.

3. 개회

- 지현탁 의장이 제7차 강원녹색당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 참가자 전원이 녹색당 '평등문화 약속문'을 낭독하다.
- 참가자 전원이 본인 소개를 진행하다.

4. 의사일정확인

- 지현탁 의장이 자료집(11쪽~13쪽)을 참고하여 정기총회 순서를 예정과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 당원들에게 묻다.
- 지현탁 의장이 기존 자료에 포함되었던 당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료에서 제외되었음을 안내하다.
-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 의사일정을 결정하다.

5-1. 안건심의: 제6차 정기총회 회의록

- 지현탁 의장이 제6차 정기총회 회의록 보고를 서면으로 대처, 지난 해 지방선거로 인해 두 번의 총회가 진행되었음을 설명하다.
- 지현탁 의장이 제6차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의 동의를 당원들에게 묻고, 당원들이 박수로 승인하다.

5-2. 안건심의: 2018년 활동보고

- 최정희 공동위원장이 자료집(15쪽~35쪽)을 참고로 강원 활동보고를 하다.
- 최정희 공동위원장이 지역활동보고를 자료집(36쪽~37쪽)으로 대처하다.
- 박설희 당원이 청년녹색당 공부모임과 탈핵특별위원회에 참석하는 당원의 명단 명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청년녹색당은 의제별 모임이 아닌지 질문하다.

- 김은지 사무책임자가 지역의 의제모임이 아닌 ‘청년녹색당’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인 것과 청년과 청소년의 의제는 강원녹색당 규약상에서 삭제된 부분을 설명하고, 탈핵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최정희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여했다고 알리다.
- 박설희 당원이 지역별로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가 생기기에는 나오는 내용을 받아줄 주체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청년 모임이 있다면 의제모임으로 지역의 청년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모임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질문의 요지를 설명하다.
- 김은지 사무책임자가 청년녹색당 공부모임의 경우 김은지 당원이 청년녹색당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청년녹색당의 지역모임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사업이며, 이후 최대한 청년녹색당의 내용을 강원으로 끌어오겠다고 설명하다.
- 한영미 당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느 정도로 지켜야하는 것이며,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당원들을 만나는 것이 좋은지 질문하다.
- 지현탁 의장이 전국사무처에서 당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받고 있고,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 개인과 개인 간의 교환은 문제가 없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다.
- 김은지 사무책임자가 누군가의 신고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하다. 또한 당원들에게 하는 연락은 사무처에 이야기 해 주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역모임의 대표들이 동의한다면 지역의 당원들에게 대표의 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대답하다.
- 박설희 당원이 개인정보보호가 지역 모임을 활성화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을 제시하다.
- 김은지 사무책임자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전국사무처의 결정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구현석 당원이 신규 당원 가입 시 해당 당원에게 지역모임 대표에게 전화번호를 제공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다.
- 김은지 사무책임자가 신입당원의 가입을 지역에서 모두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영하여 당원들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대답하다.
- 조영찬 당원이 당원 현황에 청소년 당원의 수를 표시하면 청소년녹색당 조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다.
- 최정희 당원이 자료집 33쪽 현수막 게첩에 강릉 게첩 여부를 확인하다.
- 지현탁 의장이 게첩은 되지 않았음을, 김은지 사무책임자가 제작은 진행되어 내용에 포함하였다고 설명하고 수정하겠다고 대답하다.
- 지현탁 의장이 2018년 활동보고에 대해 당원들에게 추가 질문과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박수로 동의 받다.

5-3. 당원 의견수렴 프로그램: 자세한 내용 첨부자료 참조

- 박설희 당원이 당원 의견수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 지현탁 의장이 프로그램 진행으로 취합된 당원의 의견을 2019년도 활동에 포함시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다.

5-4. 안건심의: 2018년 재정결산보고

- 김은지 사무책임자가 자료집(39쪽~42쪽)을 참고로 2018년 재정결산 보고를 진행하다.
- 지현탁 의장이 2018년 재정결산보고에 대해 당원들에게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당원들에 박수로 동의하다.

5-5. 안건심의: 2019년 활동계획(안)

- 최정희 공동운영위원장이 자료집(45쪽)을 참고로 강원 활동계획(안)을 보고하다.
- 지현탁 의장이 자료집(48쪽)을 참고로 강릉 활동계획(안)을 보고하다.
- 최정희 공동운영위원장이 속초고성양양은 당원모임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하다.
- 박설희 당원이 자료집(48쪽)을 참고로 원주 활동계획(안)을 보고하다.
- 설세찬 당원이 자료집(48쪽)을 참고로 춘천 활동계획(안)을 보고하다.
- 구현석 당원이 자료집(48쪽)을 참고로 횡성 활동계획(안)을 보고하다.
- 김은지 사무책임자가 자료집(48쪽)을 참고로 의제모임 활동계획(안)을 보고하다.
- 지현탁 의장이 당원들에게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박설희 당원이 강원녹색당 중점 활동(중장기비전 및 계획 세우기)을 별도 기구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내다.
- 구현석 당원이 중점 활동 추진위원과 기간을 정하고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다.
- 지현탁 의장이 중점 활동과 관련된 책임자를 선출에 대한 의견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총회에서 추천된다면 운영위원회에 함께 활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다.
- 김은지 사무책임자가 운영위원회와 다른 별도 기구를 만들 경우 혼동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하고, 중점 활동의 계획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차기 운영위원회에게 활동을 논의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하다.
- 박설희 당원이 중점 활동을 하는 것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괄해서 맡을 당원을 뽑아야 하며, 운영위원과는 다른 사람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다.
- 설세찬 당원이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면 규약상 겹치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 설명, 추진위원회 형식이 된다면 취진위원장의 권한(선출권, 비용 등)을 열어두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형식을 제안하다.
- 최정희 공동운영위원장이 중점 활동 운영을 맡을 당원의 여부 확인을 요청하다.
- 박설희 당원이 중점 활동과 관련하여 1~2달 역할을 맡을 당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상시적인 운영위원회에서는 중점 활동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 의견을 제시하다.
- 김은지 사무책임자가 중장기비전을 세우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1~2달이 아니라 2019년의 중점 활동으로 계획된 것이므로 계획된 것과 다르게 해석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최정희 공동위원장이 박설희 당원과 김은지 사무책임자가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지적하다.
- 지현탁 의장이 중점 활동을 이끌어갈 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 당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활동 당원을 총회에서 결정할지, 운영위원회에게 위임할지 당원들에게 묻다.
- 설세찬 당원이 2019년 임원선출 과정에서 같이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다.
- 조수정 당원이 일할 당원이 필요한 것이라면 추천으로 뽑는 것은 무의미하고 고민을 해 온 당원이 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박설희 당원이 중점 활동을 맡아 진행하겠다고 자천하다.
- 지현탁 의장이 2019년 활동계획(안)에 대해 당원들에게 추가 질의나 의견을 물어 없음을 확인하고 박수로 동의를 얻다.

5-6. 안건심의: 2019년 예산계획(안)

- 김은지 사무책임자가 자료집(49쪽~53쪽)을 참고로 2019년 예산계획(안)을 설명하다.
- 지현탁 의장이 당원들에게 질문이나 의견을 묻다.
- 설세찬 당원이 예산 항목별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묻다.

- 지현탁 의장이 논의해 본 적은 없으나 총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세부적인 조정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 대답하고 당원들의 동의를 받다.
- 박설희 당원이 2020년 이월금을 0원으로 맞추고 예비비 항목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다.
- 김은지 사무책임자가 기타 항목을 예비비로 변경, 2020년 이월금을 0원으로 수정하겠다고 대답하다.
- 박설희 당원이 중점 활동의 실행을 위한 비용은 어느 항목인지 묻고, 김은지 사무책임자가 일반사업의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다.
- 최정희 공동운영위원장이 총회자료집이 운영위원회에 전부 동의된 것이 아니라 설명, 인건비 항목에서 활동비 부분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운영위원장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무책임자의 급여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다.
- 구현석 당원이 사무처 안정화와 적립의 목적에 대해 묻다.
- 김은지 사무책임자가 사무처 안정화는 한 사람의 인건비를 만든다는 의미였으며 온상근의 활동가가 있을 경우 부족한 급여를 주기 위한 비용으로 적립이 되고 있는 것임을 설명하다.
- 최정희 공동운영위원장이 기존 45만원 급여와 45만원 적립을 그대로 가고, 적은 급여로 희생하겠다는 당원이 있을 경우 활동가로 뽑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 지현탁 의장이 인건비를 상향시켜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현재 사무책임자가 내부업무, 운영위원장이 외부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2019년에는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다.
- 박설희 당원이 사무책임자의 상황에 맞춰 활동을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사무책임자의 급여도 그대로, 운영위원장의 활동비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다. 또한 적은 임금을 주는 경우 사무와 관련된 부탁이나 의견을 주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에 맞게 지급하고 확실히 지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면 모금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다.
- 지현탁 의장이 사무책임자의 활동비와 적립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고 세부 조정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을 당원들에게 박수로 동의를 구하다.

5-7. 안건심의: 2019년 임원선출(안)

- 지현탁 의장이 선출직 운영위원에 대한 자천·타천 과정(문자)과 2019년 임원선출(안)에 대해 자료집(57쪽)을 참고하여 설명하다.
- 김희범 당원이 이름과 지역만으로 운영위원에 대한 가부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다.
- 김은지 사무책임자가 현장에 오지 못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선출직 운영위원들에 대해 설명하다.
- 박설희 당원이 서류에 이름이 넣어진 상태로 임원선출(안)이 올라오는 것은 결정된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고, 현장에서 출마하기 어려우므로 사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다.
- 김은지 사무책임자가 현장 출마에 대한 특이성을 일부 감소시키기 위해 선출직 운영위원의 경우 총회 전에 자천·타천을 받은 것이라 설명하다.
- 최정희 공동운영위원장이 해당 내용은 규약에 없으므로 합의를 해야한다고 의견을 내다.
- 김은지 사무책임자가 서류에 있는 내용은 ‘안’으로서 결정된 것이 아니며,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당원인지 꼼꼼히 답을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내다.
- 조수정 당원이 선출직 운영위원 후보의 경우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김희범 당원이 현재에는 자료와 후보가 없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다.
- 박설희 당원이 당연직 운영위원이 임원 선출을 맡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다.

- 지현탁 의장이 선출직 운영위원은 총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결정하기 위해서는 임시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 우선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총회를 여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다.
- 설세찬 당원이 선출직 운영위원 후보 중 참석한 지현탁, 최정희 당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다.
- 김은지 사무책임자가 선출직 운영위원이 5명 이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규약의 추가 선출에 따라 추가 선출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다.
- 설세찬 운영위원이 결원이 생긴 것에 대한 추가 선출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고 대답하다.
- 지현탁 의장이 현장에 있는 지현탁, 최정희 당원의 출마의 변을 듣도록 하다.
- 지현탁 당원과 최정희 당원의 출마의 변을 듣다.
- 지현탁 의장이 지현탁 당원과 최정희 당원의 선출직 운영위원 선출, 김진희, 이광호, 최희규 당원 미선출을 포함한 2019년 임원 선출(안) 대해 운영위원의 동의를 묻고 동의를 얻다.
- 지현탁 의장이 최정희 공동운영위원장을 2019년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이야기를 듣다.
- 지현탁 의장이 최정희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에 대해 당원들에게 묻고 동의를 받다.

6. 폐회선언(16:15)

- 지현탁 의장이 추가적으로 논의할 내용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고 없는 것을 하고 당원들에게 제7차 강원녹색당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첨부자료> 당원 의견수렴 프로그램 결과

1. 조직

- 평가
- 제안

1)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모이는 지역모임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 구체적인 현장이슈, 정책 스터디 등

2) 당원을 늘리기 위해 녹색당이 주체가 되고 흥미로운 활동들을 많이 하고, 비당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3) 지역에 맞는 당원가입 홍보를 해야 한다.

- 예: 황성의 경우 고령 인구가 많으므로 그에 맞는 신입당원 모집의 진행 필요

2. 선거

- 평가

- 지역구 후보를 발굴하지 못했다.

- 정책, 후보 수 모두 부족했고, 진입장벽이 높았다.

- 지역 당원모임의 저조로 선거활동이 어려웠다.

- 선거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 홍보 및 의사소통이 힘들었다.

- 제안

1) 지역 당원모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지역의제와 정책,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

2) 지역의 특색을 담은 정책을 만들고 현실성 있는 후보를 발굴해야 한다.

- 교육과 토론을 통해 후보 출마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후보를 양성

3) 선거제도 개혁(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같은 활동을 통해 선거 준비를 일상화 해야한다.

3. 교육 및 정책

- 평가

- 지역현안 연대를 잘하고 있다.

- 제안

1) 교육 시 당원 1명에게라도 집중하여 교육을 진행하여 충분히 받을 기회를 제공해주고, 작은 부분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2) 교육에 대한 일정을 미리 만들고 당원들에게 공유해야 한다.

3) 일상적인 학습(연대활동 포함)도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송진탑 반대활동을 열심히 하는 황성녹색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4. 홍보

- 평가

- 정당연설회의 현재 방식은 부담스럽다.

- 제안

1) 지역에 당원모임과는 다른 이름으로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이슈를 집중해서 전달(온라인/오프라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전담할 홍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2) 지역별로 성명서, 논평의 접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글쓰기 모임을 지원한다.

3) 지역현안을 찾는 방법 또는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리거나 찾는다.